

▶ 내신 기출 독서 천재 ◀

◆차례◆

1. 독서의 본질

- (1)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22문제) ----- 1쪽
- (2) 걷기의 발견 (51문제) ----- 12쪽

2. 독서의 방법

- (1) 걱정 기술이란 무엇인가 (49문제)----- 37쪽
- (2) 무장 포고문 (42문제)----- 58쪽
- (3) 의견 양극화와 생산적 논쟁 (35문제)----- 76쪽
- (4) 꽃 출석부 1 (11문제)----- 92쪽
- (5) 뉴스 빅데이터로 보는 육아 변천사 (5문제)----- 99쪽

3. 독서의 분야 I

- (1) 르누아르, 삶의 기쁨을 노래하다 (47문제)----- 103쪽
- (1) 순자의 성악설 (44문제)----- 124쪽
- (2)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51문제)----- 145쪽
- (2) 나는 고발한다 (23문제)----- 168쪽
- (3) 인류 역사와 함께한 질병, 결핵 (50문제)----- 183쪽
- (3) 인공 지능과 심층 학습 (25문제)----- 209쪽

4. 독서의 분야 II

- (1) 설총 (39문제)----- 222쪽
- (1) 북학의 참뜻 (38문제)----- 240쪽
- (2) 군주론 (34문제)----- 258쪽
- (2) 곁에 있는 것을 사랑하라 (9문제)----- 276쪽
- (3) 현대의 매체 환경과 매체 문식성 (6문제)----- 282쪽

5. 독서의 태도

- (1) 모든 학문이 소통하는 서재 (14문제)----- 287쪽
- (2) 도란도란 책 모임 (10문제)----- 294쪽

◆빠른 전체 정답 -----301쪽

◆해설 -----305쪽

교재 버전: 2021.02.21

▶ 내신 기출 독서 천재 ◀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독서 천재 ◀

내신 준비 가이드

Q. 내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할까?

▶ 시험일 한 달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한 달 전이면 대개 시험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전체 시험 범위의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다. 의욕이 앞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내신 준비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Q. 내신 준비의 큰 틀은 무엇인가?

▶ 학교 쌤이 곧 출제자이니, 너의 국어 담당 선생님을 신(god)으로 여겨라! 신(국어 쌤)은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창조자이니라. 그렇기에 수업 시간을 시험 준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신의 말씀을 두뇌에 입력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받아 적어 놓아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필기가 잘된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시험 대비 교재이다.

Q. 교재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 '자습서': 교과서 필기 꼼꼼히 했다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어 내신에 당장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부 착실하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한 교과서가 선생님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 자습서보다 100배 낫다.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자습서가 없어서 불안하고 참고 및 보충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자습서 파일을 활용하라! **[홈피 자료실에서 자습서 파일 다운로드]**

▶ '해당 출판사 전용 평문(평가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 전용 평문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종만 출시된다. 문제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풀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자습서(자습서에도 문제가 약간 있음)가 있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는 교재나 문제가 있는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출판사 평문을 표방한 타 문제집도 마찬가지다. **[홈피 자료실에서 기본 문제 파일 다운로드]**

▶ '기출 문제집': 국어는 기출이 진리! 반드시 필요하다. 기출은 문제의 질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질이 높던 낮던 난이도가 낮건 높건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안 보더라도 기출은 꼭 봐야 한다. 물론 수업 잘 듣고 복습 철저히 하면 기출을 풀지 않더라도 100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기출이다.

★ 기출 활용법: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 혹은 교무실(혹은 도서관)에 학교 기출이 있다. 재학생들은 열람해서 복사도 대부분 가능하다.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꼭 살펴보자. 허나 출제 쌤들은 자신의 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라는 기대는 버리자. 오히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 쌤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자습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를 내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발견되는 것에 기인한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많은 학교의 기출을 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교 쌤들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과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다.

▶ '고난도 문제집': 내신 대비로 출판사에 목차에 맞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으로도 인터넷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필요가 없다. 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질 좋은 고난도 문항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선생님도 출판사도 없다.

▶ '기타 기본 문제집': 문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출판사 차례에 맞는 않는 범용 혹은 수능 관련 기본 문제를 사서 푸는 것은 내신 대비용으로 쓸데없는 짓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나

▶ 내신 기출 독서 천재 ◀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서치해도 많은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

Q. 선행 필요한가?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도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보다 미리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문학)라는 과목 특성상 한 작품(글)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수업 내용은 선생님의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후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한 복습만이 필요할 뿐이다.

Q. 그럼 학원 선행은 불요하단 말인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론 부족할 수 있기에 학원 선행과 복습은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업을 가진 학원 쌤들이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Q.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학교 쌤의 수업 시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학교 쌤의 수업이 불만족스럽다해도 출제자는 학교 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쌤의 수업을 구워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1순위 학습은 학습활동이나 본문의 날개 문제(물음)이다. 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쌤들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별 부담과 무리가 없다.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틀림없이 서술형으로도 외워서 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2순위는 필기 내용의 정리와 암기이다. 계속 반복해서 백지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차차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홈피 자료실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Q.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이 출제될 수 있나?

▶안 배운 내용은 절대 출제 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공된 프린트에 심화된 내용 혹은 플러스된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 허나 그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슬쩍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Q.교과서 본문에 안 나온 외부 예시나 지문 출제될 수 있나?

▶교과쌤에게 위와 같이 질문했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이 쌤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부 많이 시키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내용을 일단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교과서 본 지문(작품)과 관련하여 나온 세컨 지문(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으면 물론이건 다루지 않더라도 봐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부에 작품(지문)명 정도만 언급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1 문법 파트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예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야하며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나오나 그것들을 위해 다른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까진 없다. 외부 지문은 내부 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외부 지문은 표현 기교나 분위기 정서 태도에 관한 현대시나 고전 시가의 예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독서 천재 ◀

망망의 꿈 한없이 된다.

우리는 모두 신과 같은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 점수가 우주에 저장되리라

원하는 점수를 받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풀어내어라
그리하면 그 점수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창조할 뿐이다.

이미 성취된 목표를 상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풀어보자
그리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 예언서>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목표

독서의 목적이나 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좋은 글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다.

개념 정리

■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에는 독서의 목적과 글의 가치를 고려해야 함.

■ 독서 목적을 고려하기

① 독서의 일반적 목적

학업 독서	공부를 위해 하는 독서
교양 독서	인간과 세계를 깊이 이해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하는 독서
문제 해결 독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하는 독서
여가 독서	정서적 안정이나 삶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하는 독서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독서	타인과의 관계 유지·발전을 위해 하는 공동체 내의 독서

② 독서의 구체적 목적

독자가 상황의 구체적인 필요를 고려하여 적절한 자료를 선택함.

■ 사회과 공부를 위한 독서 자료 선택: 사회과 교과서, 지도, 참고 서적, 연계 도서 등

■ 독서 목적을 고려하기

-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에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인지 판단해야 함.
- ‘고전’은 여러 세대를 거쳐 이미 검증된, 가치 있는 글이므로 고전이 주로 권장됨.
- 글의 가치를 판단할 때에는 직접 글을 살펴보거나 전문가들의 평을 참고하는 것이 좋음.

본문 연구

■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 제재 개관

갈래	수필(에세이)	성격	설득적, 예시적, 비판적
계제	독서의 가치와 도서의 선택		
주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의 필요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 수험서, 실용서와 비교하여 좋은 책의 가치를 부각함. 		

■ 글의 구성

수험서와 실용서를 넘어서	교양 독서를 하지 않는 중·고등학생들과 성인들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교양 독서의 필요성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좋은 책의 기준
	좋은 책에 포함시켜야 할 고전

■ 내용 정리

■ 요즈음 학생들과 성인들의 독서 경향

학생들	성인들
교과서와 학습서, 수험서만 읽음.	실용적이고 재미있고 많이 팔리는 책만 읽음.

■ 우리 사회의 독서 문화와 바람직한 독서의 방향

독서 문화	바람직한 독서의 방향
주로 실용적 목적으로 책을 읽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책을 읽어야 함. 소설책, 역사책, 철학책, 사회 과학책, 종교와 예술에 관한 책 등

■ 좋은 책의 기준

-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을 밝게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책
-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면서 영혼까지 맑게 하는 책
- 가슴과 머리에 진한 흔적을 남겨 삶을 변화시키는 책

■ 고전(古典)의 정의

-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보편적 가치를 획득한 책
-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 전범으로 자리 잡은 모든 작품
-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높이 평가되고 애호되는 저술

■ 고전의 가치

- 주어진 시대, 특정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관과 세계관, 사상과 철학, 취향과 감성, 고뇌와 희망이 담겨 있어 지적 산물의 최고봉이자 문화유산임.
- 인간이 스스로 들여다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온갖 사유와 지혜, 지식과 정보가 들어 있어 인류에게 불을 밝혀 주는 등대와 같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상의 모든 자료를 분류하다

도서관에 있는 책은 옆면에 각각의 이름표를 달고 있다. 숫자와 문자가 함께 사용되어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면 놀라울 정도로 쉽다. 먼저 각 책장에는 앞자리가 비슷한 책이 한데 모여 있다. 특히 맨 앞자리 숫자는 지구상의 모든 자료를 0에서 9까지 10개의 '주류'로 나눈 것이다. 이들은 인류의 역사와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000은 태초의 인간과 자연이 혼돈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특정 학문이나 주제에 속하지 않는 분야를 모았다. 100은 혼돈에서 질서를 찾기 위한 이성의 노력을 담은 철학을, 200에는 유한한 인간이 절대적인 신을 숭배한다는 뜻에서 종교를 담았다. 300에는 인간이 가족과 사회, 국가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사회학을, 400에는 사회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를 모았다. 500에는 생활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인 자연 과학을 담고, 600에는 지식이 기술로 발전된 기술 과학을 담았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술(700)이 나타났고,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문학(800)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900에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역사를 모았다.

기호	듀이십진분류법	한국 십진분류법
000	총류	총류
100	철학	철학
200	종교	종교
300	사회학	사회학
400	언어	자연 과학
500	자연 과학	기술 과학
600	기술 과학	예술
700	예술	언어
800	문학	문학
900	역사	역사

<표 1> 듀이 십진분류법과 한국 십진분류법

(나) 도서관에서 책 쉽게 찾는 법

도서관에서 책을 쉽게 찾으려면 먼저 컴퓨터로 책을 검사해야 한다. 그런데 컴퓨터는 책의 청구 기호를 알려줄 뿐 책을 직접 찾아 주지는 않는다. 청구 기호를 들고 책을 찾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청구 기호가 '410.912 x794x'인 책이 필요하다면 먼저 410번 대의 책이 있는 책장을 찾아야 한다. 이때 수많은 책장을 하나하나 살피지 말고 책장 옆면을 보자. 옆면에 400~413.8이라고 적힌 책장을 발견했다면 410.912에 해당하는 책은 이 책장의 오른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분류 기호가 낮은 책부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책을 꽂기 때문이다. 또 맨 위층에 있는 책일수록 분류 기호가 낮고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어410.8	ㄱ391x	-1=2
어		별치 기호
410.8		분류 기호
ㄱ391x		도서 기호
-1=2		부가 기호

<표 2> 도서 청구 기호의 구성

분류 기호가 비슷한 책 사이에서는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자. 410.9가 있다면 그 오른쪽에 410.911이 있고, 410.912는 그 오른쪽에 있다. 모든 숫자가 같다면 도서 기호의 문자를 확인하자. 도서 기호의 문자는 국어사전에서처럼 'ㄱ, ㄴ, ㄷ, ㄹ, ㅁ, ㅂ……' 또는 'ㅅ, ㅈ, ㅊ, ㅋ, ㆁ, ㆁ, ㆁ, ㆁ, ㆁ……' 순으로 비교하면 된다.

청구 기호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 외에 몇 가지가 더 붙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분류 기호 앞에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별치 기호'라고 한다. 이는 책의 특성이나 이용 목적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책을 보관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어'라고 적힌 책은 일반 자료실이 아닌 어린이 자료실에 가야 찾을 수 있다.

한 명의 저자가 같은 제목의 책을 연속물로 내는 경우는 '-' 기호를 써서 분류한다.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여러 권 보관한다면 '='을 써서 분류하기도 한다. 때로는 책이 나온 해를 표현하기 위해 '2011' 같은 연도를 마지막에 붙이는 경우도 있다.

(다) 이름표로 책 미리 읽기

우리나라의 대학 도서관에서는 듀이 십진분류법(DDC)를 많이 쓴다. 하지만 한글로 된 책이 많은 공공도서관에서는 DDC를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고친 한국 십진분류법(KDC)을 사용한다. 세계 곳곳에서 쓰는 DDC는 언어학을 400에 두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KDC는 언어를 뒤로 미뤄 700에 놓았다. 또한 종교(200)에서 불교의 비중을 높이고, 문학(800)에서 한국 소설이나 시와 같은 분류 항목도 늘렸다. 공공도서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KDC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책의 이름표이자 주소와도 같은 청구기호는 숫자와 문자를 조합해 만든다. 청구기호에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미리 알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415번 대의 책은 어떤 책일까? 맨 앞자리가 4인 걸 보면 자연과학 쪽의 책이라는 걸 알 수 있다. 400번 대에서 둘째 자리가 1인 것은 수학이다. 수학은 자연과학 중에서 으뜸가는 학문이라는 뜻에서 1번을 차지한다. 세 번째 자리는 수학의 세부 분류를 뜻하는데, 기하학은 산수, 대수학, 확률과 통계, 해석학에 이어 5번에 해당한다. 즉 도서관에서 415번 대의 책장에 꽂힌 책은 제목을 보지 않아도 기하학과 관련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자리 숫자 다음에 나타나는 소수점 아래 숫자는 더 구체적인 분류를 나타낸다. KDC 분류표에는 소수점 뒷자리를 분류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타난다. 학문이 끝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분야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분류표도 7~8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한다. 2013년 현재 KDC는 6번째 개정판까지 나왔다.

분류기호 만들기

도서관에 [중학수학 개념 별거 아니야]라는 책이 새로 들어왔다. 도서관에서는 이 책을 어떻게 분류할까? 먼저 수학책이므로 맨 앞자리는 자연과학을 뜻하는 4, 그 다음은 수학의 1이 붙는다. 이 책은 수학의 특정 분야가 아닌 수학 이론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셋째 자리는 0이다. KDC 표준구분표에서는 자습서나 문제집을 소수점 아래 076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 책의 분류기호는 410.76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청구기호는 분류기호에 해당한다. 주소로 치면 '구' 정도까지 나눈 셈이다. 더 구체적인 주소는 분류기호 다음에 오는 도서기호로 알 수 있다. 도서기호는 저자기호라고도 하는데, 글쓴이의 정보에 책 제목을 더해 만든다.

도서기호 만들기

도서기호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소개한다. [중학수학 개념 별거 아니야]의 저자는 '하지연'이다.



<그림 1>

<그림 1>은 <표 3> '리재철의 한글순도서기호법 제5표'에 따른 것이다. 저자의 성에 해당하는 '하'를 그대로 쓰고 이름의 첫 자인 '지'에서 '지'에 해당하는 7과 '이'에 해당하는 8을 붙여 '하78'로 쓴다. 단, 이름 첫 자에 받침이 있는 경우는 기호화하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책 제목의 첫 글자인 '중'에서 초성인 'ㅈ'을 붙인다. 결국 '하78ㅈ'이 된다.

자음기호		모음기호	
		초성이 아닌 글자	초성이 아닌 글자
ㄱ 1	ㅇ 6	ㅏ 2	ㅑ(ㅓㅕ) 2
ㄴ 19	ㅈ 7	ㅓ(ㅕ) 3	
ㄷ 2	ㅊ 8	ㅗ(ㅛㅜ) 4	ㅛ(ㅜ) 3
ㄹ 29	ㅋ 87	ㅜ(ㅠㅝ) 5	ㅠ(ㅝ) 4
ㅁ 3	ㅌ 88	ㅡ(ㅟ) 6	ㅟ(ㅠ) 5
ㅂ 4	ㅍ 89	-() 7	
ㅅ 5	ㅎ 9	ㅣ 8	ㅣ 6

<표 3> 리재철의 한글순도서기호법(제5표)

이화여자고등학교 (서울)

1.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도서에 따라 별칭 기호나 부가 기호가 없을 수도 있다.
- 도서관에서 소설을 검색하면 8번으로 시작되는 청구기호가 검색될 가능성이 높다.
- '어410.913'에 해당하는 책은 '410.914'에 해당하는 책의

왼쪽이나 위층에 꽂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 분류 기호의 맨 앞자리는 0~9까지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류의 역사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 부가 기호가 '-2=3'일 경우 해당 도서의 연속물의 제2권이 며 이 책을 3권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서울)

2. (가)와 (다)를 고려할 때, <보기>와 같은 조건의 도서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역사의 역사 - 유시민 저
- ㉡ 수학의 정석(확률과 통계) - 홍성대 저
- ㉢ 썸 수학(기하) - 홍범준 저
- ㉣ 초등 수학 교과서 개념 완성(참고서) - 김채원 저
- ㉤ 현대 국어 문법의 이해 - 나찬연 저

(단, 별칭기호와 부가기호는 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KDC와 DDC 중 어느 것이 적용되더라도 ㉠의 분류기호는 '9'로 시작된다.
- KDC와 한글순도서기호법에 따르면 ㉡의 분류기호는 '413.76홍54ㅈ'이다.
- KDC와 한글순도서기호법에 따르면 ㉢의 청구기호는 '415.76홍44ㅈ'이다.
- KDC와 한글순도서기호법에 따르면 ㉣의 청구기호는 '410.76김83ㅈ'이다.
- KDC와 DDC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의 청구기호는 달라진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좋은 책은 어떤 책들을 말하는가? 신문과 잡지, 방송과 인터넷 등의 매체가 소개하는 좋은 책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좋은 책과 덜 좋은 책을 구별해 내는 기준이 존재하는가? 물론 모든 책을 가늠할 수 있는, 어디에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잣대로서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그렇지만 좋은 책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좋은 책이란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을 밝게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세상을 살아가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영혼까지 맑게 하는 책이 있다면 그런 책을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슴과 머리에 진한 흔적을 남겨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 바로 좋은 책이다.

(다) 좋은 책의 목록에는 우선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보편적 가치를 획득한 고전(古典)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고전은 저술에서 시작해서 음악과 미술, 조각과 건축, 의상과 가구에 이르기까지 세월의 흐름을 초월해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 전범으로 자리 잡은 모든 작품들을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고전은 (㉠)을 말한다. 걸작과 명저 가운데서도 세월의 흐름을 견디어 살아남은 책, 여러 세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읽히는 책, 최소한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의 시간 동안 계속 읽히는 책이 고전이다. 고전은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읽는 책을 말한다. 고전은 주어진 시대, 특정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관과 세계관, 사상과 철학, 취향과 감정, 고뇌와 희망을 한 권의 책에 압축한 지적 산물의 최고봉이다. 그러므로 고전은 한 작가의 창작이기에 앞서 한 문명권과 인류 전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고전이야말로 인류 문명을 지속시키는 수단이다. 우리는 인류가 남긴 고전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 오랜 시간 문명을 발전시킨 인류의 고귀한 일원임을 느낄 수 있다. 인류가 문자로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한 머나먼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양과 서양에서 살아남은 고전 속에는 인간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온갖 사유와 지혜, 지식과 정보가 들어 있다. 동서고금의 고전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인류에게 빛을 밝혀 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모락고등학교 (경기)

3. 밑글에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고전을 통해 주어진 시대의 특정한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을 알 수 있다.
- 현대인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양한 실용 독서와 학업 독서라고 할 수 있다.
- 고전은 인류 전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에 앞서, 한 작가의 고유한 창작이라 할 수 있다.
- 넓은 의미의 고전은 책을 제외한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

술 작품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 좋은 책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다.

모락고등학교 (경기)

4. (나)와 관련지어 다음을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된다.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면 위안이 된다.
-키케로

•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 스스로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
-트웨인

• 가난한 자는 책 때문에 부유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책 때문에 귀해진다.
-‘고문진보’

- 키케로 :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이든 노인이 되어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 키케로 : 청년들에게는 정서적 성장이 독서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키케로 : 힘든 상황일 때는 정신적 위로나 안정이 독서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트웨인 :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것이 독서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고문진보’ : 부유한 사람은 독서를 통해 인격적·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성신고등학교 (울산)

5.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목적의 독서로 적절한 것은?

- 공부를 위해 하는 독서.
- 정서적 안정이나 삶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하는 독서.
-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하는 독서.
- 인간과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하는 독서.
- 타인과의 관계 유지·발전을 위한 개인적 지식 습득을 위해 하는 독서.

성신고등학교 (울산)

6. 윗글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적절한 것은?

- 글쓴이의 경험을 소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대상을 비교, 대조하여 의미와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다.
- 다양한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성신고등학교 (울산)

7. 윗글을 참고하여 '좋은 책'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실용적이고 재미있고 많이 팔리는 책
- 가슴과 머리에 진한 흔적을 남겨 삶을 변화시키는 책
-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영혼까지 맑게 하는 책
-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을 밝게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책
- 세상을 살아가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

성신고등학교 (울산)

8. <보기>의 독서 명언을 참고하여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독서하는 목적을 적으시오.

<보기>

- 책은 청년들에게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된다.
-키케로
-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 스스로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트웨인
- 가난한 자에게는 책 때문에 부유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책 때문에 ㉣귀해진다.
-<고문진보>

성신고등학교 (울산)

9. 오늘날에는 정보 기술이 발달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서 자료가 제공되며 그 양도 매우 많다. 그래서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 두 가지는 무엇인지 쓰시오.

대현고등학교 (울산)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설득적 성격을 가진 수필이다.
- 고전(古典)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
- 글쓴이가 생각하는 좋은 책의 기준이 나타난다.
- 좋은 책에 포함해야 할 실용서의 가치를 언급했다.
-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고전(古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현고등학교 (울산)

11. 다음 중,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 삶의 문제 해결에 있어 목적 지향적이고 유용한 저술
- 정신을 살아 있게 하고 취업과 생업에 도움을 주는 책
- 오랜 기간 많은 사람에게 높이 평가되고 사랑받은 저술
- 구비문학을 포함해 갑오경장 이전까지의 한글로 창작된 문학
- 감성적 경향성의 만족으로서의 행복이라는 목적 실현에 이바지한 문학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학창 시절이야말로 가장 왕성하게 독서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오늘날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에 들어가면 교과서와 학습서, 수험서에 둘러싸여 교양 도서를 읽을 시간이 거의 없다. 시간이 생기면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 읽기에 바쁘다. 그들이 읽는 문학 작품이나 교양 도서는 수능이나 입시 준비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 성인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실용적인 책, 재미있는 책, 많이 팔리는 책 위주의 독서가 대세를 이루면서 개성 있는 교양인의 독서가 사라지고 있다. 요즘 성인들이 주로 읽는 책의 목록을 떠올려 보자, 거기에는 연애나 목돈 만들기 등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 요리와 재산 관리, 여행, 취업과 생업 등에 도움을 주는 책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반면 당장에는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정신을 살아 있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책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을 것이다.

진정 자신의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교양이라면 잘 팔리는 인기 도서를 넘어, 실용 도서와 처세술의 책을 넘어, 자신의 내면적 삶에 변화를 가져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책을 읽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먹고 싶은 음식만 먹는 편식이 비만,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비타민 부족, 당뇨, 고혈압 등을 유발하듯이, 읽고 싶은 책만 읽는 편독도 정신적 성장과 건강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제목만 들어 보고 읽지 못한 소설책, 역사책, 철학책, 사회 과학책, 종교와 예술에 관한 책들을 꺼내 들고 호기심을 자아내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책을 찾아 읽는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세상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길 것이다. 그런 책들은 약으로 치면 몸 전체의 상태를 조화롭게 만들어 주는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 어느 한 종류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책을 균형 있게 읽는 것이 조화로운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길이다.

좋은 책은 어떤 책들을 말하는가? 신문과 잡지, 방송과 인터넷 등의 매체가 소개하는 좋은 책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좋은 책과 덜 좋은 책을 구별해 내는 기준이 존재하는가? 물론 모든 책을 가늠할 수 있는, 어디에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잣대로서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그렇지만 좋은 책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좋은 책이란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을 밝게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영혼까지 맑게 하는 책이 있다면 그런 책을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슴과 머리에 진한 흔적을 남겨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 바로 좋은 책이다.

좋은 책의 목록에는 우선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보편적 가치를 획득한 고전(古典)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고전은 저술에서 시작해서 음악과 미술, 조각과 건축, 의상과 가구에 이르기까지 세월의 흐름을 초월해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 전범으로 자리 잡은 모든 작품들을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고전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높이 평가되고 애호된 저술을 말한다. 걸작과 명저 가운데서도 세월의 흐름을 견디어 살아남은 책, 여러 세대에 걸

쳐서 끊임없이 읽히는 책, 최소한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의 시간 동안 계속 읽히는 책이 고전이다. 고전은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읽는 책을 말한다. 고전은 주어진 시대, 특정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 관과 세계관, 사상과 철학, 취향과 감성, 고뇌와 희망을 한 권의 책에 압축한 지적 산물의 최고봉이다. 그러므로 고전은 한 작가의 창작이기에 앞서 한 문명권과 인류 전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고전이야말로 인류 문명을 지속시키는 수단이다. 우리는 인류가 남긴 고전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 오랜 시간 문명을 발전시킨 인류의 고귀한 일원임을 느낄 수 있다. 인류가 문자로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한 머나먼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양과 서양에서 살아남은 고전 속에는 인간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온갖 사유와 지혜, 지식과 정보가 들어 있다. 동서고금의 고전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인류에게 빛을 밝혀 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매곡고등학교 (경기)

1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수험서, 실용서와 비교하여 좋은 책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 오늘 날의 독서 경향과 좋은 책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독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이다.
- 실용적 목적보다는 교양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는 글이다.

매곡고등학교 (경기)

13. 위 글에서 제시한 좋은 책의 조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 내용 전개가 논리 정연하여 어휘가 정확히 쓰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
- ㉡ 가슴과 머리에 진한 흔적을 남겨 삶을 변화시키는 책
- ㉢ 서점에서 가장 잘 팔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 읽는 책
- ㉣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을 밝게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책

- ㉠, ㉡
- ㉠, ㉢
- ㉡, ㉣
- ㉢, ㉣

<<해설>>

본성과 후천적인 의지에 따른 노력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를 통해 알 수 있음.

21.③

▶의인은 사고 과정인 '위'의 단계를 거쳐 건물로 뛰어 들어 간 것임.

23.⑤

▶장수(藏修)공간은 휴식이 아닌, 학문과 수양의 장소임.

24.④

▶㉗와 ㉘는 모두 내부 뜰에서는 항상 밖으로 시선이 열리도록 공간 처리가 되어 있는 개방적 공간임.

25.③

▶<순자가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다고 해서 본성대로 살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를 통해 알 수 있음.

26.②

▶지하철 의자를 보면서 저기 앉아서 자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자가 말하는 '정'에 해당한다.

27.⑤

▶선한 행위는 '위'에 해당하는, '실천적 의지'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억누르면서 참아 내기도 '려'를 통해서도 나타냄.

28.⑤

▶순자의 관점을 대조적인 관점을 지닌 주장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부각한 것이지, 여러 가지 견해를 종합한 것은 아님.

29.⑤

▶건물로 다시 들어가 주민을 대피시켰기에 '위'를 실현한 것임.

30.②

▶문고 대답하는 형식(그러면 무슨 근거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한 것일까요?~)을 사용하여 글을 전개하고 있다.

31.⑤

▶맹자는 인의예지는 밖(학습)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지닌 것이라고 함.

32.④

▶㉞은 통치자와 제도의 필요성을 근거로 맹자의 성선설을 비판하고 있다.

34.⑤

▶중심 화제(성악설)를 대조적인 관점을 지닌 주장(성선설)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35.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착하다고 한 맹자의 주장은 본성

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를 통해 알 수 있음.

36.⑤

▶사람의 타고난 성정도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힘써서 바꿀 수 있는 것은 ⑤와 관련됨.

37.⑤

▶㉠에는 욕구(외출)와 반대 방향으로 행동(어머니를 도움)을 선택한 의지가 드러난다.

40.⑤

▶맹자만이 모두 인간의 본성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교육과 수양을 강조함.

41.⑤

▶㉡은 인간이 자신의 악한 본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임.

42.④

▶㉢과 ㉣는 <대상을 평가하다.>의 의미를 지님.

43.⑤

▶순자의 성악설을 대조적인 관점을 지닌 주장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부각하여 설명하는 것임.

3-(2)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1.②

▶<정치인은 공공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인은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때 유권자의 영향력을 오히려 배제하고자 한다. 또 정치인과는 달리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기~>를 통해 알 수 있음.

3.④

▶㉣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거시적 입장에서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고, ㉤은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4.⑤

▶㉞ : 사물이 서로 어울리지 아니하고 마주침.

6.③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거나 우수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7.②

▶두 가지 논리(정치 논리, 경제 논리)의 속성을 분석하고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8.①

<<해설>>

▶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것은 경제 논리임.

9.①

▶ 정치인은 국민 투표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의사 결정에서 주권자를 대신할 권한을 지닌다.

10.②

▶ 방법 1 방역성공 확률이 제일 낮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11.②

▶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기에 경제 논리를 무조건 1순위로 하는 ②는 적절치 않음.

13.④

▶ 정치인은 정책을 결정할 때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더 우선시함.

14.②

▶ 경제인은 정책을 효과의 측면에서 보기에 경제인이 정책 효과를 예상할 수 없다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15.④

▶ 어떤 대상(정치 논리, 경제 논리)의 일반적인 속성을 제시하고,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16.③

▶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가 상충한다면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17.⑤

▶ *정치인-방법E: 예산 투입 대상이 가장 많아 유권자들에게 가시적으로 정책의 가치를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인-방법D: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정책의 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

18.①

▶ 윗글의 ㉠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 따위에 근거를 두어 그 입장에 섬>의 의미를, ①은 <내각(內閣)의 한 사람이 됨>의 의미를 지님.

19.②⑤

▶ ② 모든 정치인은 공정성을, 모든 경제인은 효율성을 우선시함 ⑤개념을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님.

20.③

▶ 방법1 예산 투입 대상이 가장 적기에 정책을 투입의 관점에서 보는 정치인이 가장 선호하지 않음.

21.⑤

▶ B는 사업이 비효율적이지만 지지자들의 요구이기에 때문

에 추진하는 것임.

23.④

▶ 정치인이 기술을 활용하여 해소하려는 것은 정책 목표가 아니라, 이익 집단 간에 생기는 마찰임.

24.④

▶ 정치인은 다수의 유권자에게 제시하기 쉬운 투입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을 결정하기에 수혜 가구 수가 제일 많은 방법1을 택할 것임.

25.②

▶ 두 대상(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대립적 측면을 비교, 설명하며 내용을 전개한다.

26.⑤

▶ 정치인과 경제인의 합의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음.

27.④

▶ 정치인은 본래 태생적인 속성으로 인해 특정 지역을 사회 전체보다 우선할 수 있음.

28.③

▶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이익 집단 간에 생기는 마찰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정책이 정치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를 통해 알 수 있음.

29.②

▶ ㉠ : 어떤 일에 영향이 주어져 지배되다.

31.④

▶ <경제인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인간 활동의 동기가 되는 경제 행위에 관한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를 통해 알 수 있음.

34.③

▶ 대상(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을 견주어 보고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상의 특성을 서술하고 있다.

35.②

▶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앞서기도 함.

36.②

▶ 정치인은 수혜 가구가 가장 많은 방법2의 방식으로 A 지역의 방역 정책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37.⑤

▶ 정치인은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이해관계를 중시함.

38.④

▶ ㉠ - 사물이 서로 어울리지 아니하고 마주치다